

광주·전남·전북·제주,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R&D 선정

사업비 89억원 투입...전력계통안정화 기술개발·실증 공모사업 추진
분산에너지 기반 기술 허브 도약 발판 마련·에너지 생태계 조성 총력

광주·전남·전북·제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시·도는 '분산에너지시스템 기반의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 및 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4개 시·도가 협력하는 이번 초광역 협력사업은 '분산에너지 기반으로 전력계통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총사업비 89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46억원, 지방비 20억원, 민간투자 23억원 등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 등에 따라 전력 공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문제와 함께 주파수와 전압의 변동성 심화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 개발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산업진흥원 등 4개 수행기관과 12개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한다.

광주·전남·전북·제주의 산학연 혁신기관과 기술특화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을 넘어 메가시티 차원의 에너지 주권 강화와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단주기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전남은 실시간 전력계통 안정화 대응이 가능한 분산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전북은 전력계통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초단주기용 ESS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제주는 분산에너지 섹터커플링 운영 기술개발을 수행한다.

각 지역의 분산에너지 자원을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전력계통 안정화 향상은 물론 지역 특화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구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이 분산에너지 기반 기술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의 날’ 체험교실

17일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앞두고 광주 북구 문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장애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과 시각장애, 휠체어 체험 등을 경험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 AI사업 예산 확보 등 총력

국회 예결위원 등 면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시 협안인 AX실증밸리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AI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집무를 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 인공지능(AI)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서남권 관문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강 시장은 17일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AI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6일에는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를, 15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령관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추경안에 AI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정부 목표인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와 엔비디아 H100 880장에 대해 GPU 추가 투입, 기업 실증 지원이 절실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광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맞춰져 있다"며 "광주의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해 알고 있고, 이번 추경안 심사 때 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광주시 대선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당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예산 확보에 비상등을 켜고 안도걸‧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래동력 확보를 위해 전격하고 있다.

강 시장은 "대선 공약 반영과 예산확보는 지자체의 미래를 결정짓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광주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는 전국 900여개의 기업이 2000여건의 AI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 AI발전의 핵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274개의 AI기업이 광주에 투자유치를 협약·실행하고 있으며, 최근 퓨리오사메이아가 광주와 협약을 맺었다.

또 AI 인재육성 사다리를 통해 1만명 이상의 AI인재를 배출했고, 2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두는 등 AI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AI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세상...광주시, 중증장애인 맞춤 지원 강화

360도 채움 프로젝트 시행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투입

광주시가 맞춤형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주거·이동·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360도 채움 프로젝트'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세이프 홈)',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 '간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완충매트·방충망·유리강화필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총 15가구를 지원한다.

벽·창문 등에 머리를 짚거나 자해·소란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올해 한시사업인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복지기금 1600만원을 들여 사설 구급차 이용료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와상 근육장애인은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만, 장애인 이동수단인 새빛돌 차량은 간이집대 탑재가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급상황 때

움이 어려워 사설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75.5%)에 비해 12%p 낮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52%에 불과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낮은 의료수가, 의료장비 및 보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명상하기 좋은 천년사찰 5곳 선정

전남도가 명상하기 좋은 도내 사찰 5곳을 선정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남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공모를 진행, 영광 불갑사와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무안 불봉사, 화순 쌍봉사 등 5개 사찰을 선정했다.

도는 천년 고찰을 활용해 차별화된 명상관광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휴식'을 주제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 사업이다.

먼저 영광 불갑사는 '심호흡 명상', '걷기 명상',

하루를 되돌아보는 '감사명상' 등 심신 수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성, 상사화축제와 연계해 오는 9월께 진행한다.

무안 불봉사는 6·10월 걷기 명상 대회, 청소년 명상캠프, 사별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사찰 내 명상 심리센터 '쉼'과 연계해 진행한다. 체류형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쉼'은 명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성 백양사는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수행과 선

명상 프로그램, 가족형 1박2일 템플스테이 등을 오는 6·11월 진행한다.

해남 대흥사는 다도 행사와 연계한 명상 프로그램과 다식·불례 체험 등 참여형 이벤트로 구성된다. 9·11월 해남 시티투어버스 테마상품과 연계해 진행한다.

화순 쌍봉사는 '쌍봉사, 꽃과 차, 길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꽃 명상·차담 프로그램, 쌍산의소 걷기 프로그램을 9·12월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찰에는 최대 2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한전KDN

상상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전KDN은 에너지 신기술로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에너지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한전KDN이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전KDN

발전

경제적인 전력 생산과 정확한 거래. 에너지 ICT로 만드는 그린 에너지 세상

에너지신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사업 발굴을 통하여 에너지 ICT 선도기업으로 도약

송변전

전국에 신재한 설비, 완벽한 관리 및 운영.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보장

배전

전기 사용을 위한 전천후 에너지 고품질의 전기 공급

판매

전기사용의 정확한 계량, 견인, 수납. 고객과의 정직한 만남

경영정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전력경영 IT 솔루션 컨설팅, 설계 및 구축